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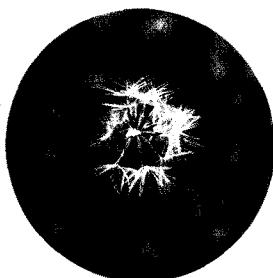
촘촘바귀(황색) 췈촘바귀보다 키가 활짝 크고
잎이나 차름세도 많이 다르다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Ground Cover Plant
of *Ixeris stolonifera*

화단 및 지피용 촘촘바귀 재배 이용

송정수 식물박사
전화번호 042-6140-1000
songjinsu@korea.com www.wildflower114.com
농촌기술센터 국립생물자원유지利用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좀씀바귀,

공터나 도로변 척박지 등 흙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잘 어울린다

민들레처럼 종자에 날개가 달려있어
자기종족 퍼트리기에 유리하다.

햇

볕이 잘 드는 양지 잔디밭이나 풀밭에 씀바귀들이 한창 피어나는 계절이다. 꽃이 노란 씀바귀나 좀씀바귀, 약간 흰색인 선씀바귀, 종종 그 중 간색을 띠는 개체도 보인다. 잔디밭에 나는 것들은 잡초로 뽑아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 이 중 좀씀바귀는 키가 작으면서 포복지로 잘 번식하며 꽃은 물론 잎 모양도 정연하여 적당한 공간에 관상 및 지피용으로 훌륭한 식물이다.

형태 및 유사종

좀씀바귀는 가는 줄기가 갈라져 땅위로 누워 뻗으면서 줄기의 마디마다 뿌리가 내려 번식한다. 꽃대는 10cm 안팎으로 꽃이 달리는 하지만 곧게 선다. 꽃은 5~6월에 노란색으로 피는데 크기는 지름 2cm 정도로 줄기 끝에 1~3개씩 달린다. 좀씀바귀와 비슷한 종으로 가장 흔한 씀바귀, 바닷가에 나는 갯씀바귀, 꽃이 흰색인 흰씀바귀, 대체로 곧게 자라는 선씀바귀 등 7종이 분포한다.

용 도

공터나 도로변 척박지 등 흙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잘 어울린다. 특히 자람 속도가 빠르고 지상부에 줄기들끼리 매트형성을 잘 하며 빨리 피복하게 되어 지피용으로 우수하며 경사진 곳의 토양유실 방지용으로도 적당하다. 번식속도가 빠르므로 다른 식물과의 경합이 우려되지 않는 곳이 좋다. 키가 작아 소형분화나 분재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 순을 삶아 물에 우려내어 쓴맛을 제거하고 나물로 먹으며 민간에서는 건위제, 발한제 등으로 활용된다.

재배기술

• 자생자 환경

산 능선을 따라서 또는 길가나 숲 가장자리에 조밀하게 생육하며 주로 메마르고 척박한 토양에서 자란다. 추위에 매우 강하고 햇볕을 좋아하며 음지나 공해가 심한 곳에서도 잘 견딘다.

• 번식

햇볕이 잘 들고 거름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잘 자란다. 씨앗이나 포기나누기로 번식한다. 씨앗은 7~8월에 잘 익은 충실한 종자를 따서 곧바로 뿌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듬해 봄에 뿌리면 발아율이 많이

떨어진다. 처음에 몇 포기를 심어 그대로 둬도 번식속도가 워낙 빠르며, 계절에 관계없이 포기나누기로 쉽게 증식할 수 있다. 초화상자나 파종상자를 이용하여 뗏장묘로 조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뗏장묘 육묘시 용토는 실험결과 피트모스 6 : 훈탄 1 : 제오라이트 1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 생육이 좋았다. 상토두께는 2cm 정도면 충분하다.

재배관리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반그늘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토양은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으며 뿌리 부분에 수분이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다. 척박지에서도 생육이 강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이다.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적절한 습도 유지만 되면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남는다. 지면 피복속도 측정을 위해 몇 군데에 정식하고 생육을 관찰한 결과, 과수원에서는 약 187배, 절개지에서는 93배, 가로변에서는 24배의 증가속도를 보였다. 보다 빠른 지면피복을 위해서는 50%정도 차광해 주는 것이 좋다.

시비 및 병충해 방제

정원이나 화단에 심을 때는 심을 자리에 미리 부엽퇴비를 넣고, 화분에 기를 때는 완효성의 덩이비료를 분 크기에 적당량 올려준다. 병충해는 아주 심한 경우는 없으나 과습하면 잿빛곰팡이병이나 탄저병이 오기 쉬우므로 물 관리를 잘하고, 한 여름 고온건조기에 응애발생이 우려되며 발생초기에 살충제를 뿌려준다.



정원이나 학습장 같은 곳에 심어도 잘 어울린다.



촘촘비귀의 꽃. 기끼에서 들여다보면 국화과 식물답게 참 아름답다.



지표면을 치밀하고 덮어 토양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크다.



햇볕이 강한 양지는 물론 그늘에서도 잘 건된다.